

WTO농업분야 차기협상의 민감사안

2000년에 재개될 WTO농업 분야 차기협상에서는 시장접근 확대, 국내 및 수출관련 농업보조금 삭감, 유전자조작농산물 교역,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방식 재검토, 환경농업 및 농촌생활여건 개선, 동식물검역협정 재조정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김진희 재미 통상변호사(전 미농무부 법무실장)는 지난 7월 3일 농경연 세미나에서 「WTO 농업분야 차기협상에 대비한 주요국의 동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EU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차기협상에 대비, 자국 농업보호를 위한 기득권 확보를 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서둘러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변호사는 WTO 차기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접근 확대방안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표준관세율 인하와 함께 수입쿼터 증량 문제도 같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오일종자(Oil Seeds) 생산자단체는 보호관세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소사육 농가들은 관세율 적용 쿼터확대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품목별로 자국 생산자들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민감한 부문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품목별 협상전략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김변호사의 설명이다.

농산물 가격 및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보조금 감

축 또는 폐지 문제도 핫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과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을 보조금 비허용조치인 블루박스에서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그린박스로 전환하는 문제도 주된 관심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린박스 확대 여부를 놓고

차기협상 핫이슈 △시장접근 확대 △국내 및 수출관련 보조금 삭감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방식 재검토 △환경농업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동식물 검역협정 재조정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 무역분쟁 거리인 식품의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동식물검역 및 안전성기준 확립과 통상마찰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설립 필요

주된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농촌복지와 환경농업 육성 문제이다.

김변호사는 「일부 국가들은 각국의 농촌경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농촌지역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농약살포 등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억제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환경농업 지원 등과 같은 사안을 그린박스에 포함시키는 문제도 협상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가들의 시장접근물

량 수입·관리가 주로 국영무역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영 기업체들(STEs)이 농산물교역에 있어 독점권을 행사, 자국 시장을 왜곡시키고 덤핑수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WTO는 이에따라 이런 폐단을 없앨 수 있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국영기업들의 시장행위

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많은 국가들의 생산자단체들이 수입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 상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생산자단체들이 마지 정부기구인양 필요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일정한 가이드라인 설정도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최세균 농경연 부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말 열린 WTO 농업위원회에서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이 현행 국영무역

방식은 일부 강대국들의 수출기회만 넓히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 「앞으로 이들에 대한 제제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 부연구원은 또 「주요 수입국들이 보험료 등 여러가지 사안을 그린박스 포함대상에 집어넣어 줄 것을 요구, 수출국과의 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상」

이라며 「우리 정부도 그린박스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0년 WTO 차기협상에서 각국의 가장 큰 분쟁거리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농축산물 안전성 문제이다.

이 문제는 벌써부터 협상의 양대 세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미국과 EU간 맞제소까지 유발하는 등 차기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의견대립을 몰고올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농축산물 안전성 문제는 단순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농축산물의 수출길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치명적인 손실을 수출국들에게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무역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다.

농축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유전자조작 농축산물(GMD)의 안전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EU는 최근 미국에서 유전공학 기술을 응용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자 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변호사는 「수입검역 문제와 안전성 시비가 농산물 교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한국정부도 각국의 검역 및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식물안전성기준 확립과 이에 따른 통상마찰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은 한국의 수입검역제도나 절차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허가품목에 대해 약 18 일간에 걸쳐 의무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감시대상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라는 것이다.

회원주소록 발간을 위한 당부말씀

올 12월말을 기준으로 한 회원 주소록을 98년초에 출간할 계획이다. 지난 1990년 3월에 발간했던 「한국양봉인명록」은 회원·비회원을 불문하고 전국의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여 9천여명에 달한 인적자원을 수록해 꾸미다보니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고 수록자료마저 정확치 못해 이용가치가 떨어진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생각해 단념해 왔는데, 최근 많은 회원들의 주소록 발간 요청이 답지하고 있어 회원주소록 발간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현재 본협회 데이터베이스 등록 회원수는 5천4백63명(협회초창기부터 등록인원 누적수)이나 되는데 협회보를 발송하는 DM부부 출력인원은 2천6백73명이다. 그러면 협회보 발송을 중단한 2천7백90명에 달한 인원은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전업 또는 유고사함을 몰라 정리되지 못한 부분으므로 주소록 명단에 넣을 수 없고, 우편배달이 가능한 정확한 주소록을 가진 회원만을 대상으로 주소록을 만들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인원의 등록 주소는 맞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화번호가 최근의 자료가 아니어서 현재의 전화번호 재등록이 필요하다. 지금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한 자료는 전화번호가 우선일 것이고 자택주소는 뒷전일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특히 유의하시고 오는 12월말까지 반드시 우편엽서에 「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어 본협회 사무국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년월일 기입은 동명이인을 가리는데 참조함)

2백36개 단체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 입법청원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업무의 농림부 일원화와 관련, 농축산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2백36개 단체 공동명의의 법개정 청원서가 11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를 위한 법개정 청원서에는 한국낙농육우협회를 대표단체로 농협중앙회와 축협중앙회,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수의관련 단체

및 학회, 전국 1백93개 축협 등 농축산관련단체 등이 청원자로 발의했다.

또 한국소비자교육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한국부인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 소비자단체 등도 청원에 참여했다.

특히 청원서의 소개서명에 국회의원도 참여했는데 신한국당

이상배의원회와 국민회의 이길재의원, 자민련 정일영의원 등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여야간사의원을 공동대표로 신한국당 의원 57명, 국민회의 55명, 자민련 38명, 민주당 및 무소속 5명 등 총 1백55명이 참여했다.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가공업무의 일원화는 행정쇄신위의 확정과제 채택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공문통보를 비롯해 1백55명의 국회의원 청원소개서명을 받은 2백36개 단체 명의의 국회 청원에 까지 와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능이나 기호성에서 자연화분을 능가하는 신제품!



락티알부민대용화분

폴벌표 Lactalbumin Pollen Substitutes®

1년묵은 자연화분보다 봉아 육성면적이 월등한 락티알부민에 자연화분 12%와 비타민C 및 천연칼슘을 첨가하고 특히 유기산을 배합하여 육아에 절대 필수인 육아봉의 봉유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이상적인 대용화분이다.



강원밀봉원

☎220-031 원주시 학성1동 436-4 (역전)
☎(0371) 42-3737 · 45-3737 FAX 731-3737

영업안내

존경하는 양봉가 여러분. 금년에도 우수한 벌꿀을 다량 생산하셔서 높은 소득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수입개방시대의 벽을 넘으시려면 저희 회사를 꼭 찾아주시기를 거듭 원하는 바입니다. 힘껏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 우량 벌꿀 고가 연중 매입
- 한국양봉협회 봉인검사품
- 벌꿀 규격드럼 (중량 약 33kg 최고품)
- 벌꿀 규격말통 (실량 25kg 들이)
- 벌꿀 규격병 (신·구형)



한국양봉진흥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희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3동 441-11.
☎(02) 481-3697~8. (夜)441-2780, FAX (02) 442-9426
경남지역 연락처 및 집하장 : 경남 산청군 시천면 덕산리
「영농법인 지리산 벌꿀」 ☎(0596) 73-7366